

광주 동구 '주민배심원제' 선발·운영 방식 논란

단체장 공약 적정여부 심의 등...광산구 외 4개구 공통사업 동구만 선착순 선정·평가항목 한정...“전문성·신뢰성 의문”

광주 5개 자치구 중 광산구를 제외하고 운영 중인 '주민배심원'의 선발이 동구에서만 '선착순'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게다가 동구는 타 자치구와 달리 단체장의 공약 평가를 '받고 싶은 것'만 받아 주민배심원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1일 광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주민배심원은 단체장의 공약 이행 현황 점검에 참여하며 심의를 통해 공약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진 계획을 제안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남구가 지난 2012년 광주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했고, 북·동·서구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제

도를 도입했다. 광산구는 지난 2019년 주민배심원제를 도입했으나, 2022년 첫 시행을 끝으로 이후 공약이행평가단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배심원 임기는 남구(35명)의 경우 단체장과 동일하다. 현재 주민배심원이 지난 2022년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선정됐다. 동·서·북구는 1년 단위로 30명을 새롭게 뽑는다. 4개 자치구 모두 1차 선발 기준은 만 18세 이상 주민으로 같으며 전화 A·RS를 통해 우선 모집한다. 2차 선발 과정까지 거친 뒤 최종 확정된 주민배심원들은 각자 맡은 평가 공약

들을 자체 모니터링한 뒤 임기가 끝나기 전 한 자리에 모여 의견을 교환, 공유하고 최종내용을 각 구청에 전달한다. 문제는 2차 선발 과정에서 남·서·북구가 전화면접을 통해 상별·거주 지역·연령을 고려해 주민배심원을 선정하는 반면 동구는 선착순으로 모집한다는 점이다. 이에 일정한 기준 및 안배 없이 선착순 모집 시 주민배심원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장과 직결된 중요한 사업들을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2차 면접 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내비치거나 상별·연령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며 "실문조사에서 표본이 중요한 것처럼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동구는 또 타 자치구가 구청장의 공약 전체를 주민배심원들에게 평가받는 것과 달리, 받고 싶은 것들에 한해 전달하고 있어 주민배심원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동구 관계자는 "주민배심원 제도의 가이드라인 격인 메니페스토본부의 권고안에 어긋남이 없다"며 "공약 조정

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해서 배심원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자치구 관계자는 "주민배심원이 주민들을 대표하는 중요한 자리라면 선착순으로 뽑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다른 자치구에선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게 방증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이어 "주민배심원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1차 선정 과정 또한 투명했는지 의문이 든다"며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의 '진짜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선 홍보가 더 이뤄져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영정 기자

'엷히고 설킨' 중앙공원 법정다툼 종지부 찍나

행정·민사소송 항소심 내달 22일 선고...대법원 상고 변수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둘러싼 법정 공방 대부분이 다음 달 마무리 될 전망이다. 광주고법 행정2부(김성주 고법판사)는 11일 한양 측이 광주시와 빚고을 중앙공원개발(이하 빚고을SPC)를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확인의 소' 항소심의 변론을 종결했다. 1심에서 패소한 한양 측은 이번 재판에서 "같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송암공원의 경우 시공사가 바뀌었을 때 광주시가 승인을 해줬다"며 "중앙공원 재판에서만 '승인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관성 없는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광주시와 빚고을SPC 측은 "중앙공원 1지구는 지분 변경이나 시공사 선정에 대해 광주시가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며 "한양의 주장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제안요청서'를 근거

로 하고 있는데, 시공사 지정 등은 컨소시엄 회사 간 사업협약서의 내용을 따르는 것이기에 광주시는 변경에 대한 승인의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행정소송 변론이 끝난 뒤 재판부는 민사2부(김성주 고법판사)로 전환해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빚고을SPC·롯데건설 간 '주주권 확인 등' 소송 항소심 재판을 재개했다. 케이앤지스틸의 인수참가요청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된 롯데건설은 "우빈산업으로부터 주식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날 변론이 종결됐으나, 광주시로부터 사실조치서 회신 등의 절차가 남아 재판부는 오는 25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같은 날 재판부는 한양과 우빈산업 간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의 변론도 마칠 예정이다.

각 소송의 쟁점은 다르지만, 중앙공원 1지구를 둘러싼 행정·민사 소송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엷히고 설킨 법정 다툼에 종지부가 찍힐 전망이다. 대법원 상고도 변수로 남아 있다. 한편 빚고을SPC는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으로, 한양 30%, 우빈산업 25%, 케이앤지스틸 24%, 파크엔 21%의 출자지분율로 지난 2020년 설립됐다. 앞서 2018년 한양은 제안·시공사 역할 자격으로 컨소시엄을 꾸려 민간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제출했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설립 후 사업 주도권 관련 내홍으로 한양 대 비한양 구도가 형성되면서 법정 다툼이 시작됐고, 우빈산업이 케이앤지스틸에 대한 콜옵션을 발동한 뒤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했다. /안재영 기자

광주지역 국회의원 친척 '선거법 위반' 수사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혐의...광주경찰, 구속영장 재신청 검토

광주지역 한 국회의원의 친척이 지난 4·10 총선 전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11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A 국회의원과 친척 관계인 B씨를 공직선

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B씨는 A씨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밖인 화순에 사무실을 차리고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들도 더불어민주당 경선 이후 허위 사실

공표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9일 발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하는 한편, A 의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영 기자



“사망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하라!” 1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조합원들이 택배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택배노조는 “주 7시간 노동시간으로 조합원들은 과로사의 대표 증상인 뇌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택배노조 광주전남지부 제공>

“남구의원들 각성하고 의회 정상화하라”

공무원노조 남구지부 성명...오는 15일 임시회 예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이하 공무원노조 남구지부)가 남구의원 의원들의 자성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 남구지부는 11일 성명문을 통해 “의원 간 삼임위원장 자리 다툼 발단으로 당초 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304회 임시회가 무기한 연기돼 구정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의원들은 대오각성하고 지금 당장 의회를 정상화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남구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후반기

삼임위원장 선출을 마지려 했으나, 당시 기획총무위원장 투표 과정에서 ‘불법 촬영’ 의혹이 제기돼 한 차례 파행을 겪었다. 다음날 긴급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하려 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고 이후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 간 각성이 오가며 원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해 현재 후반기 임시회 일정 이 연기되고 있다. 게다가 전반기 남호현 의장 등 남구 의원 6명의 이름으로 광주지방경찰청에 다른 남구의원 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남구지부는 “의회 파행으로 인해 업무보고·조례안 심사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구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되는데 선 거철이면 주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원들이 진정으로 2만 남구민의 대표라고 생각하면 사사로운 이해관계는 내려놓고 오직 남구민만을 보고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구의회원은 “더는 의회 일정을 미룰 수가 없어 오는 15일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며 “원활한 구정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실내스크린파크골프장

18홀~36홀/전국유명파크골프장 실전

- 파크골프장 실전라운딩(1~4인)
- 입문반(1:1지도)

1. 파크골프기초교실·라운딩연습교실	매일/9시~
2. 파크골프지도자1,2급자격증 취득반	수시접수

- 무더위쉼터 실내파크골프장 운영 / 오전9시~저녁10시
- 파크골프용품·용구 전시장 완비!

화정새마을금고4층 | 010-9163-789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